

## 말리 정치·경제동향

2009.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 말리(Republic of Mali)

### I. 일반개황

면적	1,240천 km <sup>2</sup>	G D P	80억 달러(2008년)
인구	12.7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630 달러(2008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448 (2008년)

- 아프리카 북서부 내륙에 위치한 말리는 아프리카 7위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12.7백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알제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와 접경하고 있음.
- 1인당 GDP가 630 달러에 불과하고, UN 인간개발지수가 총 177개국 중 173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10대 최빈국 중의 하나로 대외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저개발국가임.
- 정치적으로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23년간의 군사 독재정권을 지속해왔으나, 1992년 민간정부로 탈바꿈한 이래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제성장률	2.2	6.1	5.3	3.1	4.2
재정수지/GDP	-2.6	-3.2	-7.7	-3.1	-3.6
소비자물가상승률	-3.1	6.4	1.5	1.4	2.5

자료: IMF, EIU

#### □ 경제성장 다소 둔화

- 2004-06년 말리 경제는 본격적인 금 채굴 확대에 힘입어 평균 4.5%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해왔으나, 2007-08년에는 농작물, 가축 생산 등 농업 부문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면 수출 증가세 둔화, 해외 송금액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은 각각 3.1%, 4.2%를 기록하는데 그침.
- 2009년에는 주력 수출품인 금 생산이 상당 부문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3%대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는 한정된 세수기반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04-08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평균 4% 수준을 기록함.
- 정부의 적극적인 세수기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10년에도 세계 경기침체 악화에 따른 원조국의 공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수입을 지속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안정세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수확을 좌우하는 기후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2005년에는 가뭄 및 전기·물 가격 상승의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한 때 6%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2006-08년에는 기후 호조에 힘입어 풍작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는 평균 1.8%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도 국제유가 및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는 평균 3% 이내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농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 최근 금을 비롯한 광물 자원의 생산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이 총 GDP의 35%, 총 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 변동이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동국은 2005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 제2위의 면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기후 변동의 타격을 받아 면 생산량이 2003년 621,000톤 수준에서 2007년에는 417,000톤까지 감소하였음.
- 농업은 농작물(45%), 면(13%), 가축(28%), 어류·산림(14%)으로 구성

##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2007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동국은 전체 177개국 중 174위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도로, 식수, 보건 등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매우 열악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02년 말리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컵 축구대회(African Nations Cup)와 2005년 수도인 바마코에서 개최된 프랑스-아프리카 정상회담(France-Africa Summit)을 앞두고 도로 개선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되기도 하였으나, 커다란 개선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통신 부문에서는 100명당 전화선이 0.6개만 설치되어 있는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01년부터 정부가 국영 통신업체인 Societe des telecommunications du Mali (Sotelma)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속 지연되고 있음.
- 한편 무선통신 분야의 경우, 최근 휴대폰 가입자수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브로드밴드(broadband) 서비스의 도입과 더불어 동국의 인터넷 사용자수 또한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00명당 전화선수 : 0.68('04) → 0.66('05) → 0.59('06)
  - 휴대폰 가입자수 : 38만 명('04) → 74만 명('05) → 151만 명('06)
  - 인터넷 사용자수 : 5만 명('04) → 6만 명('05) → 7만 명('06)

##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말리는 아프리카 제 3위(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2위는 가나)의 금 생산국임. 동국의 금 매장량은 약 600-800톤, 생산량은 약 57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서부지역과 남부지역(Bougouni)에 집중되어 있음.

- 금 이외에도 망간, 동, 리튬 등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매장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서부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조사가 추진 중이며, 북부지역에서는 그동안 포기해왔던 석유 채굴 작업을 재개하는 등 자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정책성과]

#### □ IMF 및 World Bank의 지원 아래 경제개혁 추진 중

- 말리는 IMF와 World Bank의 지원 하에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면 산업의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현재 말리 국영회사(Compagnie Malienne pour le Developpement des Textiles: CMDT)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여타 산업에서는 일부 국영기업과 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민영화 작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2년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비교적 성공리에 마친 데 이어 현재 제2차 5개년(2007-2011) 발전 계획을 실시 중이며, 이는 제조업 육성을 겨냥한 인프라 개발, 공공분야의 구조개혁, 사회복지분야의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 상 수 지	-409	-438	-231	-517	-426
경 상 수 지 / G D P	-8.3	-8.3	-3.9	-7.6	-5.3
상 품 수 지	-117	-145	75	-90	-28
수 출	976	1,101	1,550	1,509	1,766
수 입	1,093	1,246	1,475	1,599	1,794
외 환 보 유 액	861	942	1,182	1,189	1,217
총 외 채 잔 액	3,339	3,025	1,436	1,704	2,248
총 외 채 잔 액 / G D P	67.0	56.4	24.0	24.8	30.3
D . S . R .	6.2	6.5	3.3	3.0	3.1

자료: IMF, EIU

####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기조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는 농업에 편중된 동국의 취약한 경제구조,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음. 2008년 동국의 경상수지 적자기규모는 GDP의 5.3%인 426백만 달러를 기록함.
- 동국의 쌀 생산 및 금 수출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및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에 대한 의존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수입국별로는 그동안 EU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역내 주변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09-10년에는 동국의 직물산업이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을 것으로 보여,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각각 455백만 달러, 591백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외채상환능력]

### □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상황 개선 추세

- 외환보유액은 동국의 금 산업에 대한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4년 8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에는 1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FDI: 1백만 달러('99) → 224백만 달러('05) → 185백만 달러('06)
- 총 외채규모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GDP 대비 100%를 초과하는 등 외채부담이 심각하였으나, 2003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 달성으로 675백만 달러의 공적외채 부담을 덜은 데 이어, 2005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에 따라 2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 받는 등 외채 상황은 지속적인 개선추세에 있음. 그 결과, 2004년 33억 달러(GDP 대비 67%)에 달하던 동국의 외채규모는 2008년 22억 달러(GDP의 30.3%)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D.S.R.도 2004년 6.2%에서 2008년 3%까지 낮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대외지급 능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60억 달러('06) → 68억 달러('07) → 80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24.0%('06) → 24.8%('07) → 30.3%('08)
  - 외채상환비율(D.S.R.): 3.3%('06) → 3.0%('07) → 3.1%('08)



### III.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Toure 대통령의 재임으로 정치 안정세 지속

- 1992년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취임한 알파 코나레(Alpha Oumar Konare) 전 대통령은 말리의 민주주의 정착, 시장경제 도입, 인권상황 개선, 적극적인 대외원조 확보 등을 통한 경제 개발에 주력하여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왔으며, 2002년 대선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기여하였음.
- 2002년 정권을 이어받은 아마두 투레(Amadou Toumani Toure) 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4월, 강력한 라이벌인 이브라힘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동국의 정치체제가 good governance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그동안 역내 국가 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정세에 일조하고 있음.

##### □ 프랑스 및 미국과의 관계 강화

- 말리는 1960년 9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래 프랑스와 대립적인 관계를 지속해왔으나, 말리에 대한 프랑스의 원조가 확대되면서 원조 지원국 - 수혜국으로서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는 테러 방지를 지원할 사하라 지역의 주요 동맹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테러 방지대책 협력(Trans-Sahara Counterterrorism Partnership) 관계를 맺는 등 양국 간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음.

## □ 주변국가와는 갈등 지속

- 서쪽으로 접경하고 있는 모리타니와는 흑인 차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와는 1990년대 국경전쟁 이후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코트디부아르와도 2002년 9월, 국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난 이래 신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또 다른 인접국인 알제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말리 북부지역 (알제리 및 니제르 국경)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말리 정부군과 Touareg 반군 간 교전의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오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

- 총 인구의 약 70%가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 말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매우 높은 문맹률(69%)을 기록하고 있음. 2005년 기준, 남성의 32.7%, 여성의 15.9%만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총 인구의 2% 미만이 대학졸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출산율 또한 2007년 기준 6.7%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 정부군 - Touareg 반군 간 분쟁 지속

- 말리 북동부에 위치한 Kidal 지역에서 정부군과 Touareg 반군 간 교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08년 5월, Touareg 반군이 말리 정부군을 공격함에 따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래, 6월에는 말리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반격을 가하여 20명의 Touareg 반군을 사살하기도

하였음. 이는 북부지역의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 북부지역의 일반인들이 인근국가인 부르키나파소로 이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08년 7.21일, 말리 북부지역의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이 알제리의 중재로 개최되어 양측이 적대행위 중지 및 협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한 크고 작은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Touareg 반군은 말리 북부지역, 모리타니, 니제르, 리비아를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는 부족으로 투쟁 목적은 말리 및 니제르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데에 있지는 않으며,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개발(특히 니제르의 우라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재분배 획득에 그 활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6등급 (2007. 10) → 6등급 (2008. 10)
- o ICRG : 110/140 (2007. 12) → 111/140 (2008. 11)
- o I.I : 139/177 (2008. 9) → 126/177 (2009. 3)
- o Euromoney : 129/186 (2008. 9) → 174/186 (2009. 3)

### 2. 외채상환태도

#### □ HIPC Initiative, MDRI를 통한 채무탕감

- 말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총 외채잔액이 GDP 대비 100%를 초과하여 심각한 외채부담에 시달렸으나, 2003년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Completion Point에 도달하면서 675백만 달러를 탕감 받은 데 이어, 2005년에는 IMF 및 World Bank의 다자간 채무탕감



##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제3위의 금 생산국인 말리는 광물자원의 높은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와 농업부문이 총 GDP의 35%, 총 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차 산품 위주의 취약한 저개발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1인당 GDP가 600 달러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악화의 영향으로 대외원조 및 외국인투자가 다소 감소하고 주력 수출품인 금 생산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 제반 경제지표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2002년 출범한 투레(Toure)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북부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말리 정부군 - Touareg 반군 간의 크고 작은 교전은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있음.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mailto:yeliekim@koreaexim.go.kr)